

# 한인신문



한인신문 FACEBOOK QR코드

취재/광고: +7 707 120 1234

운영/배송: +7 747 674 5800

haninshinmun@hotmail.com

2022년 10월 27일

NO. 85[1214]

Ханин Синмун • Еженедельная газета

27 октября 2022г.



## 카자흐스탄에 30만 달러 이상 투자자 거주 허가

카자흐스탄에 3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인은 거주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고 카즈태그가 보도했다.

“2022년 9월 1일자 카자흐스탄 대통령 메시지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3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0년짜리 장기 거주 허가증을 제공하는 법안이 현재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부총리이자 산업 통상부 장관인 세릭 주만가린은 마질리스 의회의 ‘아크 졸’ 당 대변인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에 관한 질문에 답했다.

은 주로 기존 기업의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 고품질 제품의 산업 생산 구축, 신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함이다.

“즉, 카자흐스탄 경제에 확실한 승수 효과를 가져올 투자(세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형태로 예산에 대한 추가 재정 수입)를 말합니다.”라고 산업 통상부 장관은 설명했다.

장관은 또한 정부가 카자흐스탄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즈태그

장관에 따르면 법안의 목적

### 도입 논의

노동 사회 보호 위원회 위원장인 톨레겐 오스판쿨로프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재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자론이 보도했다.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노동 규범에 따라 주 40시간, 5~6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고용주가 고용인과 협의 후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 주 4일 근무제 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한 달이 4주라고 가정했을 때, 첫째 주는 4일 근무, 둘째 주는 5일, 셋째 주는 6일, 넷째 주는 다시 4일 근무제

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협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톨레겐 오스판쿨로프

앞서 카자흐스탄 노동부는 2023년부터 주 4일 근무제를 허용하는 사회 보장 제도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카자흐스탄 사회법이 채택될 경우 규범적 법적 행위를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노동법에는 ‘공동 고용’이라는 개념적 용어를 도입시키기 포함이다.

/자론

## 주요연락처

대사관 (비자, 여권, 공증) +7(717)257-2100  
(사건, 사고) +7(705)757-9922

알마티 총영사관 (비자, 여권, 공증) +7(727)291-0490  
(사건, 사고) +7(777)705-6634

한인회사무처 +7(747)674-5800  
지상사협회 +7(701)880-8600  
중소기업연합 +7(705)900-8662  
민주평통 +7(701)755-9759

구급차 03, 103  
범죄/화재신고 (알마티) 112  
(아스타나) 101  
가스/전기/상하수도 104, 109  
알마티공항 +7 727 270 3333  
아스타나공항 +7(717)270-2999

아스타나 문화원 +7(717)290-1113~5  
한국석유공사 (아스타나) +7(717)279-0429  
(알마티) +7(727)311-0378~9  
한국교육원 +7(727)392-9120,3  
코트라(알마티) +7(727)222-323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727)274-2500  
보건산업진흥원 +7(727)228-2301  
관광공사(알마티) +7(727)344-0972  
알마티토요한글학교 +7(775)114-5460

알마티 공항에서 도움 필요할 때 +7(701)731-4802



## 항공편 안내

• 아시아나 항공\_7/1~10/29

- \* 인천 출발 화/금 18:05
- \* 알마티 출발 화/금 23:00

• 에어 아스타나

- \* 인천 출발: 월/목/일 11:05
- \* 알마티 출발: 월/목/일 01:10

**SAMSUNG**

## The Freestyle

Приключайся!

# 캠퍼스에서 펼쳐진 ‘공화국의 날’ 축하 전시회

타스테미로바 굴사라(카자흐국립대 예비학부 부교수) • 세릭바예바 자리빠(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 수석교원)

따뜻한 가을햇살이 포근하게 비추는 지난 10월 하순 주말에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 캠퍼스에서는 의미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공화국의 날”(10월 25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시간을 조금 앞당겨 참가자들의 관심 속에 개최된 것이다. 이 날 캠퍼스 도처에서는 “딜마르” 대학생 웅변대회와 미술 전시회, 스타트업 코너, 교직원 체스대회, 카자흐 전통 놀이 ‘토그즈 쿠말락 대회’,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디자인 전시회, 카자흐 전통씨름, 도서 전시회, 수공예 전시회, 각 나라의 문화 코너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전통 수예를 보급하고 각국의 문화를 소개할 목적으로 기타 여러 공연들도 행해졌다. 또한 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다양한 식품과 과일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황금가을”이라는 식품전도 개최되었다.

이 날 기념 행사에 카자흐국립대 각 학부의 많은 교수진과 재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많은 행사들 가운데 유독 주목을 많이 받은 행사가 있었다. 바로 예비학부(주요

외국학생들이 언어를 배우는 학부)의 “자스 세베르” 동아리가 ‘스타트업’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수공예 - 신비스러운 예술”이라는 주제의 수공예 전시회였다. 이번 개최된 수공예 전시회의 목적은 대학생 젊은이들에게 뜨개질 작품도 소개하고, 또 수공예 자체를 보급하는 데에도 있었다. 수공예 전시회는 현장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는데, 작품으로 전시된 품목마다 젊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수공예품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불러 일으키는데 충분했다.

전시되는 수공예 작품들은 손으로 뜨개질한 스마일리 형태의 장난감과 어린 소녀용 드레스, 가방, 베개 커버, 슬리퍼 등이었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자스 세베르” 동아리에서 만든 작품들에 관심을 나타냈는데, 수공예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과 더불어 수공예 제작 방식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졌고, 적지 않은 작품들을 구매하기도 했다. 동아리 운영자들 또한 수공예 작품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전시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밝혔다. 알-파라비 카



자흐국립대학교 투이메바예프 총장 또한 관람객들의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Food and Art First” 전시 코너를 방문했다. 그 또한 예비학부의 “자스 세베르” 동아리의 수공예 작품들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성공을 기원하며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날’은

1990년 10월 25일 제정된 국경일이다. 30여 년 전에 당시 카자흐사회주의공화국 최고회의 결정으로 국가주권에 관한 선언이 공표가 되었는데, 이로써 독립국가로서의 카자흐스탄의 정치·법적 기초가 마련되었고, 이후 독립선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공화국의 날’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가장 의미있는 국경일 중의 하나로 기념되

고 있는 것이다. 성스런 국경일에 맞추어 진행된 다채로운 캠퍼스 행사는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에 갇혀 있던 우리의 마음에 큰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명년에도 이런 행사가 또 개최되기를 기대하며, 카자흐스탄 모든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감을 느껴 보는 국경일 시간들이 되기를 바란다.

## 카작에서 13년 만에 다시 공화국의 날 공휴일로 제정

올해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이 공화국의 날을 국경일로 기념한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1990년 10월 25일 카자흐스탄의 국가 주권에 관한 선언이 승인되었다.

선언문은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연방국의 주권을 선언하고 카자흐스탄의 정치적, 법적 기반을 독립 국가로써 선언했다.

선언문에는 최초로 영토의 완

전성, 불가분성 및 불가침성, 민족 문화와 언어의 발전, 국가 정체성의 강화와 같은 국가 원칙을 담고 있었다.

2001년 10월 25일 국경일 목록에 공화국의 날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2009년 초대 대통령은 국경일 목록에서 공화국의 날을 제외시킬 것을 명령했다.

지난 6월 16일 카숨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가 민족 제1회의에 참석해 공화국의 날을

다시 국경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카자흐스탄 상원은 9월 영화, 문화, 기념일에 관한 카자흐스탄 입법 변경 및 개정에 관한 법을 승인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기념일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고, 10월 25일 공화국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12월 16일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다.

초대 대통령의 날인 12월 1일

을 국경일에서 제외하지는 법안도 제안되었다.

10월 22일 카숨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공화국의 날을 앞서 국가 표창 및 수상을 진행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공화국의 날을 주요 국경일로 지정해 진정으로 전국민이 축하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공화국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제안했는지 알

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콘서트, 학문 컨퍼런스, 예술 콩쿠르, 스포츠 행사 등이 준비되어 있고 애국, 자원봉사, 자선을 주제로 한 행사가 조직될 것입니다.”라고 카숨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공화국의 날의 의미와 정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제안들이 국내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카즈인폼

SHINHAN BANK

EXPERIENCE WORLD CLASS FINANCIAL SERVICE

One Shinhan